

**자료제공 : 2023. 1. 23.(월)**  
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	안전지원과장	안형준	2133-8515
	안전지원팀장	황성원	2133-8517
사진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사진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매수 : 매	담 당 자	조민정	2133-8518

**설연휴 한파경보 발령..서울시 비상체계 가동 종합상황실 운영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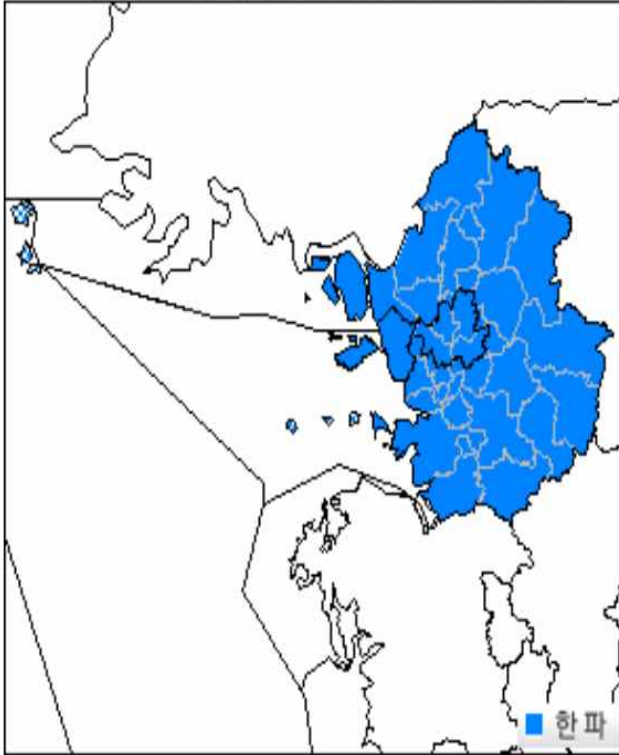
- 설날 다음날인 1.23(월) 21시 서울전역에 한파경보 발효, 서울시 24시간 대응체계 가동
- 취약어르신 대상 안부전화,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순찰강화 등 취약계층 보호
- 서울시 전광판, 사회관계망(SNS) 등 활용해 한파대비 시민 행동요령 전파

- 기상청에서 1월 23일(월) 21시 서울전역에 한파경보를 발효한다고 예보함에 따라 서울시는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, 24시간 대응체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.
  -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,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.
-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한파 피해가 없도록 상황총괄반, 생활지원반, 시설복구반, 구조·구급반, 재난홍보반 등 총 8개반으로 구성, 상황 모니터링 및 대응활동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.
  - 25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 운영과 방한·응급구호물품을 비축하는 등 한파 피해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.

- 서울시는 사회관계망(SNS)을 통해 건강관리에 유의하도록 시민들에게 시민행동요령을 전파하였고 급격한 기온하강으로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도록 안내하였다.
- 또한, 설연휴 기간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전화로 안부를 묻고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, 직접 방문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도시락·밀반찬 배달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.
- 서울역, 영등포역, 시청 일대에서 거리 노숙인에게 상담 및 응급구호 활동을 지원하고 24시간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.
- 모바일 ‘서울안전누리’ 및 ‘서울안전앱’을 통해 한파를 비롯하여 각종 재난 시 시민행동요령과 실시간 재난속보를 제공하고 있다.
  - ※ 서울안전앱(구글플레이, 앱스토어 다운로드) 서울안전누리([www.safecity.seoul.go.kr](http://www.safecity.seoul.go.kr))
-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“한파 상황실을 즉시 가동해 시민피해가 없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며, 설연휴 마지막날에 강추위가 예상된 만큼 시민여러분들도 귀경길 안전사고에 유의해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부탁드립니다.”고 말했다.

**붙임** 기상청 기상특보 ('23.1.23.(월) 10시 발표)

특보 발표구역 (2023.01.23. 10:00)



특보 발효현황 (2023.01.23. 21:00 이후)

